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3. 5. 1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5월 17일(수) 15:00~18:1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3년도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번에 소액공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투자계약증권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 이 두 종류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30억 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 (보고자) 2019년에 「사모·소액공모제도 개편방안」 발표할 때 정했던 금액임. 2012년에 10억 원으로 정해진 것인데 제도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 경과했던 시간이나 가치 상승 등을 반영해서 그 당시에 30억 원 정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한 가지 첨언 드리면 적정성 적용 대상 증권이라는 것이 파생결합증권과 조건부 자본증권에 해당되어서 사실상 현재까지 기존의 소액공모의 적용을 받아서 발행하기 불가능한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 의결안건 제8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 의결안건 제83호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의 금융투자업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왜 펀드를 팔려고 했던 것이고, 얼마나 팔렸던 것인지?

- (보고자) 펀드판매업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가 11개사 정도 되는데 초반에는 수익기반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펀드판매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익을 확보하려고 했던 취지로, 2007년도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의한 펀드판매사 등록 이후 4년간 펀드를 판매하였고, 2010년 이후에는 신규판매를 중단하면서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가 청산되면서 꾸준히 잔고는 감소하였음. 결국 펀드판매업 자진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84호 『OOOO(주)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이번 ‘중과실’ 조치는 2018년 이전 감사팀과 2019년 감사팀을 하나의 감사팀으로 묶어서 징계조치한 것으로 해석이 됨. 그래서 2019년 감사팀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2019년 감사팀의 ‘중과실’ 징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감사팀은 오랜 기간 회사의 오

류사항이었던 판매장려금 회계처리 이슈(issue)를 발견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재작성 하였고, 그다음 해인 2020년에는 미지급금 회계부정을 발견하여 감사위원회에 회계 부정조사를 요청하고 포렌직 감사를 수행했음. 또한, 무너진 회사의 회계를 바로 세우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파트너를 담당한 3년 동안 투입인원의 변동 없이 유지했으며, 금감원의 감리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자료도 제출하고 문답에 응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음. 또한 2019년 감사팀은 2018년 이전 감사팀과 다르게 新양정기준을 최초로 적용받게 되고 新양정기준을 도입하면서 ‘고의’가 아니면 ‘과실’을 원칙으로 하고 ‘중과실’ 요건을 舊양정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도입 시 취지가 있었으며, ‘중과실’ 요건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중요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번 미지급금 부정 건은 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 4배 미만에 해당하고, ‘그 밖에 사회 통념에 비취 위법행위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2019년 감사팀에 대한 조치는 ‘중과실’ 보다는 ‘과실’로 조치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 (위원) 판매장려금과 매출채권 등에 대한 회계처리의 오류가 있어서 2019년 감사팀이 이슈(issue)를 발견하고 재작성 한 것이 반영된 것이 2020년 2월28일자인데 미지급금에 대한 것은 이 정정금액이 반영된 이후에 확인이 된 것이고, 일단 판매장려금과 매출채권 등과 관련하여 손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2018년 이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재감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거나 하는 것이 있었는지?

▶ (진술인) 요청보다는 저희도 판매장려금에 대한 오류가 이미 확인이 됐고 2019년에 대한 부분은 잉여금까지 해서 확정(fix)을 시켰음. 그런데 2018년, 2017년, 2016년 과거 재무제표에 오류가 숨어있었기 때문에 그 재무제표를 바로 잡기 위한 재무제표 재감사를 2020년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음.

○ (위원) 판매장려금과 매출채권 관련된 부분 그 이전 것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출발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미지급금에 대한 이슈(issue)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포렌직까지 요구를 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리고 미지급금 관련된 오류를 발견하셨을 때 재무제표 수정요구를 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 부정조사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과거 재무제표 수정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미지급금을 차감하면서 판매장려금, 즉, 매출을 차감한 분개를 발견하였고, 잘못된 회계부정 사항이라는 것을 직감하여, 감사위원회에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 2018년 감사인과 2019년 감사인을 달리 볼 여지는 없는지? 왜냐하면 행위 판단기준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지적한 것이 사실 2019년 감사인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행위판단의 기준이나 중요성 기준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2018년 감사인과 2019년 감사인은 조금 달리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임.
- (보고자) 행위판단 기준이라든지, 동기판단 중에 일부 2019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음.

(16시 26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 (위원장) 제84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회사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또는 前대표이사 ○○○, ◆◆◆ 및 □□□에 대하여 미지급금 임의상계 관련 지시 또는 묵인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검찰에 업무정보 송부하도록 하고, 2019년 감사인은 新양정기준이 적용되지만 원인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다는 점, 위반금액의 중요도가 4배 미만이라는 점, 감사인이 부정 징후를 발견하여 회사가 재무제표를 정정하도록 적극 조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추가감경하고,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1년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85호 『(주)OOOOO 前대표이사 ☆☆☆ 등 2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8호 『(주)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  
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위원장) 지난번에 실질주도자인 ☆☆☆ 과징금 부과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없음.

- (위원장) 제18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습니다.  
동건 위반의 실질적 주도자인 ☆☆☆는 회사의 대표이사 퇴  
임 후에도 담당임원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등 회사에 지  
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과징금 수준은 다른 피조치자들에 비해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의거하여 ☆☆☆에게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과징금을 1,950만 원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59호 『(주)OOOOOOOO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함.

- (보고자) ☆☆☆이 2018년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업무수행한 자로 보아, 1단계 가중하여 '중과실Ⅲ단계'를 '중과실Ⅱ단계'로 수정심의 및 ☆☆☆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하기로 한 부분이 있음.

○ (위원장) 제59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음. 공시담당이사 ☆☆☆이 동 건 위반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다른 임원들에게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안은 피조치자 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피조치간 제재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규정 [별표 7] 양정기준 중 가중사유인 그 밖에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내용 또는 정도에 비해 조치 등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회사에 대한 조치중요도를 원안에서 1단계 가중하고 검찰에 회사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하여 업무정보를 송부하는 것으로 수

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 보고안건 제17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2년도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 보고안건 제18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22년도 감사반에 대한 감사인 감리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17시 13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 ☐ 의결안건 제86호 『(주)선익시스템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87호 『SK(주)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 의결안건 제88호 『에스에너지(주) 등 3개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일 아침에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트레이더가 주문을 내는 과정에서 A펀드에서 주문이 나갈 것을 착오로 B펀드에서 주문이 나가게 됨. 그래서 B펀드는 원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매도 상황이 벌어진 것임. 수량은 4,000주이고 금액은 약 8,000만원 정도 됨. 저희가 이 사실을 바로 직시하고 바로 매수를 해서 펀드는 약간의 손해를 봤지만 원상회복을 한 상황이고, 변명할 여지없이 명백한 담당자의 실수는 인정을 하고 있음. 다만, 의도성이 없었다는 점과 금액이 크지 않고 바로 복구하는 조치를 취했음. 아울러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OMS라는 주문관리시스템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구축하고 여러 가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다 한 상황임. 이런 정황을 참작해 주셔서 선처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림.

○ (위원) OMS라는 시스템은 이런 일을 어떻게 방지하게 되는 것인지?

▶ (진술인) 그동안 별도의 주문시스템 없이 직접 증권사의

HTS를 이용해서 주문을 넣었는데 OMS라는 것은 저희 펀드 사무수탁사에서 별도로 개발한 주문관리시스템으로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 펀드에 주식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주문이 나가는 것이 막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위원) 지난번에 무차입공매도하신 것은 어떻게 바로 알게 되신 것인지?

▶ (진술인) 담당자가 주문을 내고 매니저가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즉각 인지를 하게 되었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Mizuho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을 겸허히 인정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자 함. 본 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유사한 취지로 말씀드린 바 있었으나 Mizuho에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Mizuho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에 대한 굳은 다짐을 직접 말씀드리기 위함임. 이런 경우에는 Mizuho의 직원이 직접 출석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Mizuho의 담당직원 중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없어 부득이 법률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Mizuho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既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Mizuho는 2021년 6월10일 ㉮㉮㉮ ㉮㉮을 통해 SK(주) 주식의 공매도 주문을 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는 11,197주가 공매도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음. Mizuho는 금융감독원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모두 인정함. 또한, Mizuho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여 본 사안을 인지한 직후인 2021년 6월22일부터 공매도를 전면중단하였으며, 본 건에서 문제가 된 차입장 부상 포지션 조정기능. 즉, 오버라이드 기능을 제거함으로써 차입잔고에 주식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경우가 아니면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음. 부디, 제재양형 시 이러한 점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Mizuho는 한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투자활동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유사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겠음.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게 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작하시어 Mizuho에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거래일은 6월10일인데 알게 된 것은 6월22일이라고 하셨는데 맞는지?

▶ (진술인) Mizuho에서는 본 건을 정확하게 인지한 것은 ㉮

☞☞☞☞으로부터 본 건에 문제가 있다고 통지를 받은 2021년 6월15일이고, 그다음에 자체조사를 통해서 공매도가 발생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6월22일부터 한국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중단하였음.

○ (위원) 15일에 ☞☞☞☞☞에서 통지받은 것이 그러면 결제는 됐던 것인지?

▶ (진술인) 본 건 공매도가 발생했었던 것은 6월10일인데 그날 바로 2,000주를 차입해서 공매도 결제는 무사히 다 이루어졌음.

○ (위원) 차입한 이유가 ‘이것이 무차입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차입한 것인지?

▶ (진술인) 6월10일 당일에 무차입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뒤늦게 차입을 한 것은 아님. 당일에 원래 차입을 해서 매도하려고 애당초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형식상으로는 차입 순서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매도주문이 제출된 것임. 그래서 당일에는 본인들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임.

○ (위원) 그러면 그날 차입매도를 계획 하셨는데 Mizuho 내부 거래시스템에 매도주문이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차입을 했다는 말씀인지?

▶ (진술인) 순서상으로 그렇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공매도 위반이 발생한 사안임.

- (위원) 그것이 원래 Mizuho에서 거래하던 방식인지를 여쭙보는 것임.

▶ (진술인) 아님.

- (위원) 그러면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어서 그날만 그랬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아니면 2,000주 차입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홀드(hold) 하겠다는 것이 나중에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차입을 한 것인지?

▶ (진술인) 2,000주는 결과적으로는 ATF Desk(주식트레이딩 팀)에서 차입을 해 달라고, 이만큼 주문이 나갔으니 이만큼 주문이 나갔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SBL Desk(내부 주식 대차부서)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팔게 될 때 수량을 알려주면 차입을 해 놓겠다고 했는데 뒤에 ATF Desk에서 얘기해 준 것을 이만큼 차입이 필요하구나 하고 ATF Desk는 그때 받아들이고 그때 차입을 하게 된 것임.

- (위원) 그러면 ♡♡♡♡♡은 무엇을 정확하게 알려준 것인지? 일의 순서를 보니 무차입공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된 것인지?



▶ (진술인) 맞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하고 있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지난번에 처리한 건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한다면 2안도 고려할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 고의를 가진 경우 ‘중과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과실인 경우와 동일하게 다 7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매도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초기이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규정은 만들어놓았지만 실제 어떤 사례들이 나와서 구체적 타당성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을 단정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시행 초기에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 감경률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더라도 저희 자체로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틀을 가지고 가서 운용해 보고 ‘몇 년 동안 운용해 봤더니 이런 미비점이 있더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규정에 반영하는 형태로 조정(tuning)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고 ‘고의’에 대해서, ‘중과실’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겠지만 단순 과실과 동일한 감경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에 있어서 저는 2안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음.
- (위원) 저도 ○위원님 생각과 비슷함. 2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왜냐하면 부당이득이나 주문금액 비중을 감안해서

감경률을 차등적용한다는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의’에 대해서도 감경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함. 다만,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이 만약 2안 적용할 경우에 선행조치와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2안을 적용하는 것이 1안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 (위원) 저도 의견이 우연치 않게 같음. 단순히 주문금액 이런 기계적인 것을 떠나서 과징금의 크기와 실수의 정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럼에 있어서는 2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부통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무차입공 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가 물론 제일 좋음. 그런데 그런 일이 우연치 않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고 알아낼 수 있는 내부통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음. 그런 것들을 차등을 두려면 2안처럼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안건 제86호 Rayliant Investment Research에 대해서 과징금을 73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고, 의결안건 제87호 Mizuho Securities Asia Limited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원안의결을 하고, 의결안건 제88호 Caisse De Dépôt Et Placement Du Québec에 대해서 과징금을 6,480만 원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제86호 및 제88호 안건은 수정의결하고, 제87호 안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에 각각 동의함

⇒ 제86호 및 제88호 수정의결, 제87호 원안의결합

- 의결안건 제89호 『OOOO(주)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기획조사3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위원) 원래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잔금 치르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 ▶ (진술인) 맞음. 잔금을 지인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분이 약속을 철회하는 바람에 제가 잔금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음.
- (위원) 처음에 주장하시기로는 잔금 지급을 해서 취득한 후 바로 다시 양도를 했기 때문에 대량보유보고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대량보유보고의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 ▶ (진술인)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음. 제가 회사채 투자를 처음 해 본 상황이었고 계약 이후에 잔금이 준비 안 되는 상황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음. 그런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계약체결일에 대량보유보고의무가 생기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그 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이 건은 既발행된 전환사채(CB)인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